

# 박 미하일의 『개미도시』 연구

## -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여하나(한국의국어대) · 정덕준(카자흐스탄국립대)\*\*

###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4. 현재 재구성:          |
| 2. 과거의 기억:<br>억압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주체 탄생의 기대와 주제의식의 변화 |
| 3. 현실 인식의 확장:<br>근원적 가치, 새로운 세계 모색 | 5. 나가며              |

## 1. 들어가며

이 글은 고려인 작가 박 미하일의 장편소설 『개미도시』<sup>1)</sup>의 서술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기법적 특성과 함의, 작가가 내보이고자 한 주제의식을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8653).

\*\* 여하나(제1저자), 정덕준(교신저자)

1) 박 미하일, 전성희 역, 『개미도시』, 맵씨터, 2015.

박 미하일<sup>2)</sup>은 고려인 5세로, 고조부는 19세기 후반인 1860년대 악덕 지주의 횡포와 봉건적 수탈로 인해 한반도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해 간 1세대 연해주 이주민으로서 낯선 이국땅에서의 간고한 이주 정착의 과정을 감내해야만 했다. 또한, 그의 부모세대는 스탈린의 배타적 민족주의 정책으로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사건을 겪으며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와 맞닥뜨려야 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CIS의 각 독립 국가에서 일어난 민족주의적 정책은 고려인들에게 어느 한 곳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시금 자신들의 타자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실의 시간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고려인들의 간난의 삶의 역사와 그들의 주된 정서 및 의식의 저변에 흐르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와 자기 실존에의 탐구는 박 미하일 소설의 주요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그의 첫 장편소설 『천사들의 기슭』에서부터 『예올리』에 이르기까지 박 미하일은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고려인의 삶의 문제와 애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온 것이다.

박 미하일은 러시아 문단과 고려인 문단 모두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sup>3)</sup>로, 그의 작품세계는 다른 고려인 작가들의 소설과 비교해서 다소 독특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즉, 박 미하일은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소련 체제의 모순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시대의 모순을 극복할 전망을 모색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주 고려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sup>4)</sup>는 문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1949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생. 1961년 타지키스탄 두산베로 이사, 1970년 두산베미술대학 졸업. 1976년 단편 『사울렌』으로 문단 데뷔 후 중·장편소설 9편, 단편 21편 발표. 『천사들의 기슭』(1995), 『흰 닭의 춤』(2015),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1995), 『밤은 태양이다』(2019), 『개미도시』(2015), 『사과가 있는 풍경』(2018), 『헬렌의 시간』(2017), 『예올리』(2020) 등이 한국어로 번역 출판됨.

3) 박 미하일은 단편 『기다림』으로 ‘해외동포문학상’(1999, 미국, LA), 중편 『사과가 있는 풍경』으로 ‘발렌틴 카타예프 문학상’(2001, 모스크바), 장편 『예올리』로 ‘발렌틴 카타예프 문학상’(2007, 모스크바), 단편집 『남쪽에서의 구름』으로 ‘쿠프린 문학상’(2010, 모스크바), 단편 『해바라기』로 ‘재외동포재단 및 팬클럽 문학상’(2001, 한국), ‘KBS 해외동포 문학상’(2007, 한국)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 미하일 소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sup>5)</sup> 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고려인 혹은 혼혈인이라는 문화 혼종적 주체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주 고려인(혹은 혼혈인)이라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문제, 방랑자 의식과 유랑의 정서로 대변되는 디아스포라 의식을 살핀 연구들이 생산되었고, 이는 박 미하일 소설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한편, 이러한 다소 경도된 디아스포라 문학적 접근은 『개미도시』와 같은 작품에 대한 논의<sup>6)</sup>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지게 된 한 요인이 된다.

- 
- 4) 고려인 작가는 크게 ①중앙아시아/러시아 고려인 작가, ②사할린/연해주 출신의 고려인 작가, ③탈북 고려인 작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출신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다. ①의 경우는 주로 현지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고, ②는 고려인 사회나 소련 사회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으며, ③은 고려인의 문제를 소련과 남북한 사회 체제와 연결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박 미하일은 ①의 작가군에 속하면서도 고려인 사회와 러시아(구소련) 사회의 갈등과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 변별된다. 정덕준·김계르만, 『박 미하일 소설 연구: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94호, 2015, 350-352쪽 참조.
- 5) 박 미하일 소설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김종희(2005), 박 안도니나(2011), 권기배(2012, 2014), 이상갑·정덕준(2013), 이정숙(2014), 장마야(2014), 정덕준·김계르만(2015), 박치완(2018), 마기영(2019), 여하나(2019), 정수연·박양하·김영미(2019) 등의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문제와 디아스포라 의식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장마야(2014), 정덕준·김계르만(2015), 여하나(2019)는 박 미하일 소설에 나타난 '예술'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이상갑·정덕준(2013), 정수연·박양하·김영미(2019)는 박 미하일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를 살피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탐구에 대한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세분된 연구의 결을 보여준다.
- 6) 『개미도시』에 주목한 연구로는 이상갑·정덕준(2013), Temirbolat Alua(2016) 등이 있다. 이상갑·정덕준(2013)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의 불안한 시대상이 박 미하일 소설에 짙게 드러난다고 보고 1990년대 이후 발표된 소설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의 소설을 관류하는 작가 의식의 하나로 '사랑'의 의미를 분석, 박 미하일이 『개미도시』를 통해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체제를 비판하면서 불안한 시대 상황의 탈출구로써 사랑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개미도시』를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이 작품을 깊이 있게 천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Temirbolat Alua(2016)의 연구는 개미 세계와 인간 세계, 실재와 허구, 현실과 꿈의 교차점으로부터 생겨난 다차원적 시공간(크로노토프)의 (불)연속성에 주목, 『개미도시』의 미적 구성 원리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개미도시』는 인간계의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진화한 ‘개미’를 우연히 만나 개미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일을 바탕으로 한 우화소설이다. 이 소설은 억압된 사회 속에서 획일적 권위에 의해 생기 없이 억눌린 채 살아가는 개미들의 삶의 형태와 개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사회제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근원적인 인간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데, ‘다르게 말하기’의 총화인 알레고리를 사용하여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말하자면, 『개미도시』는 박 미하일의 다른 소설에 비해 그 형식이 독특하며, 내용 면에서도 그의 다른 소설에 반복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물음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화소설은, 잘 알려진 대로,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내보이는데, 인간 세계에 대한 풍자와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알레고리 기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알레고리<sup>7)</sup>는 본디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기’라는 의미로, 어떤 한 주제 A를 말하기 위해 다른 주제 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암시하면서 풍자적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방법,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한 텍스트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방법이다. 그런데 벤야민은 이 알레고리를 ‘다르게 말하기’라는 수사학의 기법적 틀에서 더 나아가 작품의 역사성이 내포하는 정치·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들을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재규정한다. 알레고리를 통해 버림받고 좌절한 존재가 처해 있는 자연상태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승리자로부터 억압받는 패배자의 지위를 관련지어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즉, 벤야민의 알레고리는 지배적 의미 질서의 강요 아래 가려져 있는 사물들이 새로운 의미연관을 맺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사유의 장이자, 현실적 의미를 철저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방법론인 것이다.<sup>8)</sup>

7) 국어국문학회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하』, 한국사전연구사, 1994, 1871-1872쪽./ 김병욱 외,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571-573쪽./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406-407쪽 참조.

이 글은 『개미도시』의 알레고리라는 소설 기법에 주목하고 이를 살펴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주제의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개미도시』는 “모든 상황은 역사적인 충돌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작품에 이러저러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고 작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sup>9)</sup> 이 소설은 소련 시대라는 지나간 역사를 반추하며 현재를 재구성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역사와 현실의 총체성을 현재적으로 재구성하는 사유의 방법론”<sup>10)</sup>이라는 벤야민의 알레고리 이론은 『개미도시』를 살피는 방법적 틀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소설에 나타나 있는 닫힌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개미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작가는 개미 도시로 들어간 ‘이방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하며, 궁극적으로 개미 도시가 보여준 이면의 논리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을 전제로 작가가 이 소설을 쓴 시대적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미도시』를 통해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 의식을 확인하는 이와 같은 작업은 박 미하일 소설에서 『개미도시』 이전과 이후의 소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과거의 기억: 억압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8) 임석원,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 연구 : 『독일비극의 원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80-81쪽./ 정의진,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론의 역사 시학적 함의』, 『한국비평문학회』 41호, 2011, 387-397쪽 참고.

9) 박 미하일, 『작가의 말』, 『개미도시』, 뱀씨터, 2015.

10) 정의진(2011) 위의 글, 387쪽.

『개미도시』는 인간계의 사람이 뗏목을 타고 여행하던 중 우연히 강물을 쳐다보고 있던 개미 ‘마크’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개미 마크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주인공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의 모습으로 진화하게 된 개미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소설은 개미 세계의 바깥에서 온 ‘나’의 시선을 통해 개미 도시의 구조적 시스템과 개미들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있다.

이 소설에서 개미 ‘마크’는 주인공 ‘나’를 ‘이방인’<sup>11)</sup>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게오르그 짐멜에 의하면, ‘이방인’은 “근원적으로 집단의 특수한 구성 요소들이나 특수한 경향들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객관성’이라는 특별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여기서 객관성이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긍정적이고 특별한 종류의 참여를 뜻하며, 자유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객관적인 인간 즉 이방인은 “주어진 것에 대한 인식, 이해 및 평가를 미리 결정짓는 그 어떠한 고착된 관념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방인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더 자유로운 사람이고, 모든 관계를 더 공평무사하게 조망하고, 이것들을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상에 비추어 측량”하며, 또한 행위에서도 “관습, 신앙심, 선례에 구속되어 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sup>12)</sup> 따라서 개미 도시에 나타난 ‘이방인’의 시각은 개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시선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것들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조망케 하고, 사회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개미 도시에 발을 들이게 된 ‘나’는 ‘검은 갈대’를 뜻하는 ‘체르니 까미슈’라는 별명<sup>13)</sup>으로 활동하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11) 박 미하일, 『개미도시』, 2015, 8쪽. 이하 쪽수만 표기.

12)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79-88쪽.

13) 테미르볼라트(Temirbolat Alua, 2016)는 작중인물들이 서로 별명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작가가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존재의 상대성과 조건성, 인간이라는 존재의 내면을 감추려 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설은 “개미들이 끝도 없는 행렬을 지어 오르락내리락”(15) 하는 모습, “개미들의 물결”(17), “여전히 길을 따라 위아래로 붓물처럼 움직이고 있”는 개미들의 “미친듯한 움직임”(18)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미 세계에서 서로 별명으로 불리는 것은 별명이 주는 익명성을 통해 각 인물의

그의 눈에 비친 개미 도시는 하나의 억압되고 폐쇄된 사회 체제를 표상한다. 그것은 ‘나’가 최초로 만난 개미 마크가 간수 개미라는 것도 그 도시의 성질을 가늠케 한다. 죄인들을 지키는 자, 감시하는 자, 경찰, 감옥, 체포, 중죄인과 같은 단어들이 이 도시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20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개미 ‘아버심’, 자신을 검탈하려는 고위관리의 따귀를 때린 죄로 감옥에 갇힌 그의 딸 ‘솔레이’는 폐쇄되고 갇힌 사회 체제 속에서 억압받는 민중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이다. 아버심은 약 20년 전에 솔방울 씨를 삼킨 것이 잘못되어 가슴에서 나무의 싹이 자라게 되었고, ‘경찰’에게 발견되어 비밀리에 지하 깊은 곳에 갇히게 된다. 그의 몸에서 뻗어져 나간 소나무는 거대하게 자라나 도시 중앙의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며 ‘도시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막중한 일을 맡고’(45) 있다. 아버심은 곧 풀어주겠다는 약속만 받고는 20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아버심을 지하 감옥에 가둔 주체가 바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이라는 점이다. 경찰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국가 장치이다. 군대와 경찰과 같은 국가 장치는 억압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응집력과 재생산을 보장한다.<sup>14)</sup> 아버심을 지하 감옥 속에 가두어 그의 삶을 통제하는 주체가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아버심의 문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이 소나무는 강압적이고 폭력적 힘에 의해 나무가 뿌리 내려졌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온기가 느껴”지고 “심장 고동 소리”(44)를 내는 광장의 소나무는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폐쇄된 사회 체제와 권력에 의해 얼마나 억압받고 억눌린 채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내보이는 것이다. 이는 곧 개미 도시를 떠받치고 지탱하는 세계가 민중을 강제로 억압해야지만 유지되는 사회임을 드러낸다.

개미 도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공간은 교도소/감옥이다. 체제를 유지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교도소에 마크와 같은 간수 개미들이 죄인들

고유한 개성이 박탈당한 모습을 나타내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4) 루이 알튀세르, 김웅권 역, 『재생산에 대하여-자크 비에 서문』, 동문선, 2007, 374-379쪽.

을 지키며, 고관들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하고 있다. 죄를 지은 개미는 찢값을 치르기 위해 높은 망루로 올려보내진 후 물속으로 처넣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 “헤엄을 칠 줄 모르”(6)는 개미들의 세계에서 ‘물’은 곧 두려움의 대상이다.

우리는 교도소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중략) 그 한가운데에 마치 다이빙대처럼 생긴 것이 세워져 있었다. 마크는 목재 고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것을 돌려서 줄을 감기 시작했다. 그러자 높은 망루 앞에 있던 네모난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다. 뚜껑이 완전히 다 열리자, 저만치 아래에서 철썩이는 물이 보였다.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돌투성이 해안이 급경사를 이루며 가파르게 나 있었다.

“여기는 형이 집행되는 곳이라네.” 하고 마크가 말했다. “죄수들을 망루로 올려보낸 다음, 거기서 물속으로 던져 넣는 거지. 죄를 지은 자는 그 찢값을 받으면 그만인 거야...” (52-53)

“우린 물을 끄찍이 무서워한다네. 그래서 자네가 보듯이 여기 이렇게 강 근처에 오는 것조차도 나 말고 다른 개미들은 엄두도 못 내지. 정말 그렇다니까. 우린 물을 엄청 두려워하거든. 조상 대대로 그래왔지. 자진해서 헤엄을 친 개미가 있다는 얘기는 개미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네. 물론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한 개미들 얘기는 있지. 또 형벌로 물속에 처넣어지는 개미도 있고. 우리한테 물은 지옥과 같다네. 음식을 할 때나 씻고 샤워를 할 때 물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경우는 없지.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 저수지나 강, 바다들을 보면, 우린 마치 흉악한 고양이 앞에 있는 가련한 쥐처럼 몸이 떨러오고는 해.” (7)

물은 창조와 파괴라는 서로 다른 양면적 의미를 상징하는 이미지이다.<sup>15)</sup> 그러나 소설 속 개미들의 세계에서 물은 끄찍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자살’ ‘지옥’ ‘형벌’과 같은 죽음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즉, 개미들은 물을 파괴적인 속성과 연결, 죽음과 소멸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체르니 까미슈’가

15) 물은 생명을 상징하며 무한과 불멸의 의미를 지닌다. 창조의 원천이자 풍요, 정화의 측면에서 물은 우주적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물은 태풍과 홍수와 같은 변혁을 통해 파괴적 측면과 전멸, 죽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 사전』, 푸른사상, 2009, 198-203쪽 참고.

아버심의 딸 솔레이를 만난 곳 또한 교도소 안이며, 솔레이는 곧 물속에 처박혀 처형될 위기에 놓여있다. 아버지 대에서부터 그의 딸 세대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억압받고 있는 상황, 개미 도시는 이처럼 폐쇄되고 갇힌 사회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오랜 세월 통제와 억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자유와 생명을 말살하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개미 도시는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은 “기술자, 수학자, 화학자, 그리고 의사 따위는 절대 배출하지 않”(10)으며, 개미들은 직업상 기사들을 “중죄인으로 간주”(9)하여 감옥에 가두어 놓는다. ‘역사의 굴’을 만든 기술자는 그들이 개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굴을 만들었으나, 그가 역사의 굴을 만들었다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되고 “철학적 사고를 하는 우를 범”(36)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의 굴은 도시의 개미들뿐만이 아니라 황제 개미 또한 매일 이용할 정도로 사회적 효용성과 상징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미 도시의 모순적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개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폐에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등근 지붕’을 발명한 ‘기사’의 모습을 새겨 넣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등근 지붕은 개미 도시를 외부의 침입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개미 세계라는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산물이기도 하다. 등근 지붕에서 내리비치는 인공적인 빛은 아침과 저녁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가시적 시간의 흐름을 차단한다. 등근 지붕은 시간의 순리를 거스르고 시간의 흐름을 교란함으로써 낮과 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적 구분을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개미들은 “여전히 길을 따라 위아래로 붓물처럼 움직이”(18)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과 반복된 내일의 일상을 쳇바퀴 돌리듯 살아가고 있다.

한편, “하늘을 대신해 있는 등근 지붕”(84)은 “부서질 것만 같은”(84) 불길함을 가져다준다. “창조적인” “기술자 하나가 도시를 위해서 등근 지붕을 만들어 냈지만, 언제나 이 등근 지붕을 파괴하려는 또 다른 개미가 있게 마련”(92)이라는 황제 개미의 발언은 등근 지붕이 창조와 파괴라는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창조와 파괴의 순환적 원리를 긍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을 생산해 개미 도시를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발상을 “늘 경계”(92)하여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존속될 (불가능한) 세계 구축이라는 왜곡된 세계관을 조성하여 이를 강요하는데, 이것은 힘을 가진 자들에게 “이 도시가” 언젠가 “붕괴될”(55)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이 작품에서, 억압과 통제된 상황 속에 윤택되어있는 개미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미들은 사회제도와 관습 속에 내재해있는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가난은 개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그들의 일상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그들은 쉼 없이 일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생활이 왜 나아지지 않는지,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기술자들은 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지, 권력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다. 그저 통제된 사고 체계 하에서 습관적으로 구태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계단 옆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는 개미를 보고도 “아마 곧 죽을 거”라며 “도움 따윈 필요 없”(35)다는 반응에는 생명에 대한 무감각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개미들의 은어인 ‘가름 마루하’라는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게 무슨 차이야’라든가 ‘다 그게 그거지’라는 뜻”(49)을 지닌 ‘가름 마루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는 의미로, 타인에 대한 이타성의 결여를 드러낸다. “개미들한테는 친구라는 게 없”(39)으며, 도움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는 개미들은 함께 더불어 살 때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공존·공생의 원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듯 진정한 사랑의 부재는 이곳 개미 도시에서 남녀 간의 영혼 없는 사랑의 행위만이 가득한 이유가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미도시』는 체르니 까미슈라는 이방인의 시선을 통해 폐쇄되고 억압된 사회 체제의 정경과 통제에 순치(馴致)된 시민들의

사고관을 내보이고 있는데,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쓴 것”<sup>16)</sup>이라는 점에서 시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에는 소비에트연방 시대의 신화적 허상이 벗겨진 후 파편화된 세계를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시각이 담겨 있다. 소련이라는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본질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개미 도시의 시스템과 사회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아가 인간에 대한 실존주의적 철학과 삶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즉, 『개미도시』의 핵심 메시지는 존재론적 ‘인간’ 탐구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박 미하일이 내보이는 인간 본연이란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지평은 어떠한 것인지를 해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 3. 현실 인식의 확장 : 근원적 가치, 새로운 세계 모색

『개미도시』에서, 박 미하일은 체르니 까미슈의 시각으로 개미 도시 사회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내보이며 지나간 역사와 억압의 시대에 대한 객관적 성찰이 가능하도록 이끌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체르니 까미슈라는 이방인의 역할이다. 체르니 까미슈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억압된 현실을 들추어내고, 마크와 동행하거나 때로는 혼자서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회의 여러 문제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다른 개미들과는 달리, 문제들과 부딪칠 때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의를 제기한다.

16) 박 미하일, 「작가의 말」, 『개미도시』, 뽁씨터, 2015.

“이게 뭐지?”

“바퀴벌레 덩이라네.” (중략)

“바퀴벌레가 많이 빠졌나?”

“한 무더기 되지.”

“그 덩은 누가 만들었는데? 미지네츠 아닌가?”

“바로 그라네. 어떻게 그라는 걸 알았지?”

“그냥 던져본 말이야.”

“이건 그의 첫 발명품이었지.”

“그런데 이것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군.”

“쓸모가 있지. 체르니 까미슈, 자네 이제 질문은 그만하게나. 안 그러면 이제 정말 화를 내겠네.” (46-47)

‘역사의 굴’과 ‘바퀴벌레 덩’, ‘둥근 지붕’은 개미 도시에서 모두 그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개미 도시에서는 발명이 지닌 창조와 파괴의 양면적 속성 때문에 기사들은 모두 벌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점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문제적인 시스템 앞에서 체르니 까미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문하고, 질책한다. 기술자들을 향해서는 “기사들이 뭘 어쨌길래? 뭣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지?”(9)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소나무 일화를 듣고는 비밀이란 언젠는 밝혀지게 마련인데, “도시에 다른 소나무들을 심을 생각은 없는 거야?”(46)라고 반문한다. 죽어가는 개미와 감옥에 갇힌 솔레이의 사연에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35)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거지?”(49)라며 질책한다. 이 작품에서 체르니 까미슈가 개미들을 향해 던지는 ‘물음’은 자유와 사랑 같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맞닿아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 질서와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자 변화를 이룰 시발점이 된다. 그런 점에서 체르니 까미슈의 이의 제기는 개미 도시와 같은 획일적인 체제와 통제된 사회로부터의 탈출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박 미하일은 이 작품에서, 개미들이 속박된 현실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체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각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의식이란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모색을 기반으로 한다. 체르니 까미슈가 개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에게 자유와 사랑, 생명에 대한 소중함,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일깨웠다는 데 있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의식과 삶의 변화를 아버심과 솔레이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아버심은 오랜 세월 지하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삶의 의미를 잃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며 연명하는데, 그의 모습에는 자유를 빼앗긴 채 삶의 모든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정신적 마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투영되어 있다.

“이봐요, 왜 당신을 여기에 가둬둔 거죠?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도 없잖아요? 뿌리도 내렸고, 이제는 땅에서 직접 양분을 흡수하며 자랄 수 있는데 말이예요.”

“벌써 거의 20년 동안이나 저들은 나를 속여 왔어. 나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다고. 저들의 속셈을 난 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 굴속에 가둬둘 심산이라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조차 여기서 나가고 싶지가 않게 됐어. 난 뭘 먹는 것도 그만됐지. 그 세월 동안 난 오로지 내 딸 솔레이와 만날 수 있기만을 고대해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결코 그 아이를 볼 수 없을 거야.” (중략)

“여기서 달아나는 건 어때요? 등과 가슴에 있는 뿌리들을 잘라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소용없는 짓이야.” 야크판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이 빌어먹을 놈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해도 난 움직일 수가 없어. 다리가 굳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손으로 가면 되잖아요!” 난 이렇게 말하고는, 그에게서 그릇을 내려놓게 하고는 뿌리를 가늠해보았다. (66-68)

20여 년 동안 굴속에 갇혀 지낸 아버심은 “저들의 속셈”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다. 그저 억압과 통제된 현실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며 살고 있을 뿐이다. 그는 무기력하고, 삶에 대한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탈주는 아버심의 썩은 정신적 ‘뿌리’를 끊어내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체르니 까미슈가 아버심의 “등에 있던 뿌리들을 모조리 잘라”내

고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자유로워진 가슴을 이리저리 만져 보”(69)며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 체르니 까미슈가 아버심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 스스로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도움으로써 비로소 아버심은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자유,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아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아버심의 재탄생은 소련 시절 자유를 갈망하던 박 미하일의 자유의지를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박 미하일이 살았던 소비에트 연방 시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자유는 예술가 박 미하일의 오랜 열망이었다. 작가는 이 소설 집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소련이 해체되고 “모든 사람은 변화와 자유”, “좀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있었”지만, 그러나 곧 “거대 국가가 15개 독립국으로 분열되고”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시대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소련이 해체된 후 “내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좀 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었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말하자면, 『개미도시』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응답이며, 메시지인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삶은 자유가 있는 삶이라는 메시지가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사랑이 빛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지인을 사랑하고, 혹은 낯선 타인도 사랑해야 한다. 온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은 우리 개개인에게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작가의 말>, 『개미도시』)

나아가, 박 미하일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사랑이 빛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랑’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역설한다. 이는 소설에서 체르니 까미슈가 물에 빠져 처형된 솔레이를 “강에서 구출”(82)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룬 것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이 사랑의 의미는 남녀 간의 사랑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작가는 아버심과 솔레이에게 자유와 사랑을 안겨주는 동시에 개미 도시 시민들에게 아버심과 솔레이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체르니 까미슈는 지하 감옥에서 구출한 아버심을 이발사 ‘올라’에게 부탁하고, 그녀는 아버심의 일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타인의 일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마크 또한 체르니 까미슈를 도와 물에 빠진 솔레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통해 개미 도시는 점차 정상적인 사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체르니 까미슈에 의한 변화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민들의 변화를 통해 황제 개미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급기야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다.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 변화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민들은 더 이상 아무런 열정도 없이 기존의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지닌 자들로 변모하게 된다. 이 변화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 박 미하일은 이 사랑을 보다 나은 세계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구원의 탈출구라고 말한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낯선 타인”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박 미하일은 “온 세상을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개개인에게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하며, 이 소설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이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개미도시』는 소련이 해체되고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안과 혼돈의 시대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방향과 모색을 내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 소설이 보여주는 주제의식이다.

박 미하일은 이 작품에서, 개미 세계의 시스템과 사회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지나간 역사를 성찰하고 있다. 나아가 소련 해체와 함께 찾아온 어지러운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인간 근본의 문제,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탐색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인간 본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담아 보이는 것이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박 미하일 소설은 “고려인 사회와 소련 체제의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시대의 모순을 극복할 전망을 모색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주 고려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문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주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천사들의 기슭』에서부터 『밤은 태양이다』에 이르기까지 『개미도시』 이전 소설에서는 고려인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대·계층 간 갈등 상황, 고려인 주인공의 자기 정체성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개미도시』에서는 고려인이라는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인간 본연의 정체성 문제를 다룸으로써 물음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sup>17)</sup>의 시대상이 작품 창작에 반영된 데서 연유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박 미하일은 『개미도시』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 본질적으로 인간이 공유해야 할 보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답함으로써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4. 현재 재구성 :

### 주체 탄생의 기대와 주제의식의 변화

『개미도시』는 알레고리 형식으로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재구성하는 박 미하일의 사유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 알레고리 작가는 “일상적인 것 속에서 꿰뚫어 볼 수 없는 비밀을 간파하고, 표현된 것에서 드러나지 않은 층위를 밝혀”내는데, 이를 통해 “지배적 의미 질서 속에서

17) 박 미하일, <작가의 말>, 『밤은 태양이다』, 도서출판 상상, 2019. “1991년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소비에트연방을 구성했던 15개의 국가는 모두 독립되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도처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나는 이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를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했다.”

숨겨진 것, 잊혀진 것, 배제된 것을 다시 구원의 역사로 불러들인다.” 알레고리 작가가 그러한 것처럼 박 미하일은 『개미도시』를 통해 “폐허 속에서 끈질기게 침잠하여 죽은 사물들을 관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구원의 계기”를 발견하고 있다.<sup>18)</sup> 이는 소련 해체 직후의 암울하고 혼란한 시대상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한 『개미도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94) 일을 하는 개미들은 늘 가난에 허덕이고, 개미 도시는 사창가의 창녀 개미들을 비롯하여 온갖 사회적 약자들로 가득하다. 주인공이 알게 된 창녀 개미는 “술집 이름은 ‘일곱 가지 희망’인데, 여기 있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82) 는 ‘희망 부재’ 현실을 토로한다. 특히 이곳 식당의 메뉴는 당시의 시대상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세 가지 종류의 수프”는 각각 “〈일곱 가지 불행의 썹〉, 〈저녁노을의 혼돈〉, 그리고 〈잔인한 가슴〉”(60) 등인데, 작가는 완전수를 표상하는 숫자 ‘7’과 사회에 만연한 ‘불행’의 심리적 상태를 연계시켜 암울한 시대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아가, ‘저녁’ ‘혼돈’ ‘잔인한 가슴’이 내포하는 이미지로 암담하고 비인간적인 당대 사회를 내보이는데, 이는 작가의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의 정체, 소련이라는 지나온 역사와 소련 해체라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엿보게 한다.

박 미하일은 이 작품에서, 시대적 성찰을 바탕으로 궁구한 인간 존재의 본연과 삶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 할 지평을 내보이는데, 이는 체르니 까미슈와 솔레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방인 체르니 까미슈는 정신적으로 죽음 상태에 빠져 있는 개미들과는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이며 자유와 사랑이라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솔레이를 무기력하고 맹목적 복종에 길들여 있는 개미들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게 이끌어주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체르니 까미슈는 박 미하일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 유형, 소련 해체 이후 사회를 선도해나갈 신인류의 모습이라

18) 임석원,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 연구 : 『독일비극의 원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43쪽, 80쪽.

말할 수 있는데, 솔레이의 변화된 삶은 이를 가늠케 한다.

앞장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솔레이는 물에 빠져 처형될 위기에서 체르니 까미슈에 의해 구조되고, 다시 삶을 이어가게 된다. 개미 도시의 개미들에게 ‘물’은 “지옥과 같”(7)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죽음과 소멸을 의미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솔레이가 구출됨에 따라 ‘물’은 파멸이 아니라 재생과 구원의 의미로 바뀌는데, 솔레이가 겪은 죽음과 소생의 통과 의례는 세례의식과 그 상징적 의미가 같다.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세례의식에서 물에 잠기는 행위는 형태가 존재하기 전의 상태로의 회귀를 상징한다. 머리를 물속에 넣을 때 인간은 완전히 침잠되어 매장되지만, 물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때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sup>19)</sup> 세례의식에서 ‘물’이 상징하는 바대로, 솔레이는 물에 잠겼으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구속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원히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아버지를 찾았”(83)으며, 체르니 까미슈와의 사랑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개미 도시의 관리들은 솔레이를 농락한 고위관리를 해고하고, 해고된 관리는 “솔레이를 만날 때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는 “생각지도 못했던”(82-83)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솔레이는 정신적, 정치적 죽음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사랑이 있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작가는 이 작품에서 물의 상징적 의미를 빌어 솔레이의 재탄생과 개미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주체 탄생에의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개미도시』의 마지막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공 ‘나’가 강가로 나와 자신을 기다리는 금발의 여자를 낚을 놓고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19) 크리소스톰(St. John Chrysostom)은 세례의식에서의 물의 상징적 의미를 죽음과 생명, 매장과 소생의 재현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훈, 앞의 책, 199쪽 참고.

나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머리 위에서 단풍잎이 날리고 있었다. 내가 누워 있는 나무 그늘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빛과 그들의 경계선에는 갈대를 입에 문 개미 떼가 둔덕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미집을 짓는 중이었다. 그때 내 가슴팍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몸이 온통 초콜릿색인 그 개미는 뒷다리로 서서 그 등그스름한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 개미는 땅으로 기어 내려가 자기 동료들과 합류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풀밭에서 꾸러미를 집어 들었다. 그 안에는 동네 가게에서 산 빵이 들어 있었다. 나는 덤불 숲에서 나와 강가로 향했다. 거기에서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언덕배기 위에서 그 배를 내려다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배 안의 화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군가 낫선 이가 내 배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운 감자와 버섯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가 내 코끝을 간질였다. 막사에서 누군가의 발이 튀어나오더니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금발 머리 여자는 냄비 뚜껑을 들어 올리면서 숟가락으로 안을 휘젓기 시작했다. 햇볕에 잘 그을린 그녀의 몸매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연약한 손놀림이 무척 낮익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신비한 창조물을 멀리서 뉘 놓고 바라보았다. 그러는 내 모습은 영락없는 새 사냥꾼처럼 보였다. 그것도 무척 신비한 회귀종을 발견한 사냥꾼 말이다. 하지만 그 사냥꾼은 올가미를 치는 것도 잊은 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97-98)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작가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 되는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개미 도시에서의 일화들이 주인공 '나의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의 눈에 띈 가슴팍의 작은 개미 한 마리는 꿈속 마지막 장면에서 체르니 까미슈를 힘껏 부둥켜안은 개미 마크의 현현이며, 무척 낮익은 손놀림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금발의 여자는 현실 속에 재현된 솔레이의 형상이다. "구운 감자와 버섯"은 개미들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일곱 가지 불행의 썸>과 <저녁노을의 혼돈>, <잔인한 가슴>을 만드는 주재료들이지만, 이제는 한 남자를 위해 요리하는 여인의 사랑으로 의미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현실과 예술적 가상을 결합하여 소망하는 세계를 그려 보이는 것이다. 아도르노

에 의하면, 예술적 가상은 현존재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적대적인 현실과 맞서며, 은폐되어있는 것들을 현상으로 나타나게 만든다. 동시에 현존하지 않는 본질 혹은 가능성의 본질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예술적 가상이다.<sup>20)</sup> 따라서 개미 도시에서의 우화적 상황은 박 미하일의 예술적 가상이라 바꿔 말할 수 있다. 작가는 개미 도시의 우화를 통해 지나온 소련 시대의 역사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재 사회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한편, 더 나은 미래에의 기대와 가능성을 내보인다. 소련 해체 이전과 이후를 “빛과 그들의 경계선”에 겹쳐 놓고, 과거의 역사적 “그들이 옆으로 옮겨져”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미래가 빛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인간 본연의 회복, 자유와 사랑이 가득한 세계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

『개미도시』의 주제의식, 인간 본연에 대한 박 미하일의 사유는 이전 소설과는 결을 달리한다. 박 미하일은 『개미도시』 이전의 소설에서 고려인이라는 특수한 민족적 표지를 지닌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고려인 사회의 민족 정체성 문제를 천착해 보았다. 그의 첫 장편 『천사들의 기습』은 그 좋은 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아르까지 임’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정신이 퍼뜩 들 때”<sup>21)</sup>가 한두 번이 아니며,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이방인 의식을 드러낸다. 고려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닌 ‘아르까지’는 소련 사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자문한다. 그는 “조선인”인지 “유럽인”인지 아니면 “조선인의 얼굴을 한 러시아인”인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내가 누구일까 라는 질문”(149)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다. 박 미하일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며 유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체성 문제는 방랑자 의식을 생산하는 근원적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련 해체 직후에 발표한 『밤은 태양이다』는 특히 그러하다. 이 소설의 주인공 ‘비겐찌 전’은 “복잡한 소속으로 이루어진 정체성”<sup>22)</sup>을 가진

20) T.W.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2010, 170-173쪽.

21) 박 미하일, 전성희 역, 『천사들의 기습』,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도서출판 새터, 1995, 149쪽. 이하 쪽수만 표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민족적으로는 한반도에 뿌리를 둔 고려인이지만, 소련이라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그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권 소지자로 그 신분이 바뀌는, 이 시기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상징하는 인물<sup>23)</sup>이 된다. 비겐찌는 자유를 갈구하는 시인이지만, 동양인 외모를 지닌 그의 삶은 아시아계 이민자라는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 소련 해체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비겐찌와 같은 아시아계 이민자는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타자성의 문제와 맞닥뜨린다. 그래서 비겐찌는 경계 너머의 자유를 끊임없이 꿈꾸게 된다.

『개미도시』는 자기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정체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들 소설과는 다른 물음을 제시한다. 박 미하일은 소련 해체 이후 갖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던 시대 상황 속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직접 겪을 수밖에 없었다. 알려진 대로, 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립 국가에서 일어난 민족 혹은 국가 정체성 논쟁은 첨예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민족의 언어,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역사 속의 영웅들을 내세워 자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하려 하였다.<sup>24)</sup> 이에 따라 언어는 물론 정치사회체제와 문화 등 모든 질서가 각 토착 민족 문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기에 이른다. 각 독립 국가들에는 원주민과 소수민족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소비에트 시민으로 살아온 고려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소련 시절 강조되지 않았던 이러한 종족성과 민족성이 사회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고려인들 또한 민족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여 자신들의

22) 아밀 말루프, 박창호 역, 『사람 잡는 정체성』, 이론과 실천, 2006, 7쪽.

23) 여하나, 「고려인 작가 박 미하일의 소설에 나타난 예술의 문제」, 『국제한인문학연구』 25호, 2019, 12-13쪽.

24) 최한우, 「과도기 중앙아시아 현상과 한인 정체성 문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5, 250-254쪽.

입지를 넓힐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려인들은 고려인협회와 같은 단체를 창설하고 잃어버린 언어와 전통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강제이주 사건의 공론화와 민족 자치주 설립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 고려인들의 입지를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였다.<sup>25)</sup> 그러나 고려인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민족 내부에서도 세대와 계층,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민족 정체성 문제가 오히려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이라는 ‘이중적 현실’(dual reality), 고려인도 아니고 러시아인도 아니며 현지인일 수도 없는 현실 때문에 이 지역 고려인의 정체성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박 미하일 소설의 인물들, 『천사들의 기슭』의 주인공 아내 ‘넬리’, 『사과가 있는 풍경』의 드미뜨리 리-마로프, 『밤은 태양이다』의 비겐찌 전 등은 그 한 예이다.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에서의 민족주의 부흥과 민족 정체성 ‘강화’는 나와 너, 우리와 너희, 안과 밖의 구분과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본질주의와 배타적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을 빚어낸 것이다. 소련 해체 후 박 미하일이 경험한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 도처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황폐화는 이러한 민족주의 ‘강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박 미하일은 ‘더 나은 삶’,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민족 정체성의 문제에서 인류 보편적 정체성이라는 문제로 나아간다. 그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소련 해체 후의 진행된 혼란과 혼돈의 시대상을 타파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눈앞의 내일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혼돈의 사회현실과 부딪치며 인간 본연의 문제에 침잠,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성찰하게 된다. 자신에게 향하던 민족 정체성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 인간 보편의 문제로 관심을 확대하여 소련 해체 이후 “온통 불의의 사건들로 가득한 세상”과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sup>26)</sup>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색하게 된 것이다.

25) 김경학 외, 『소련 사회주의 체제 해체 후 카자흐스탄 종족민족주의의 부활과 고려인의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6권 1호, 2000, 47-56쪽.

26) 박 미하일, 전성희 역, <작가의 말>, 『에올리』, 도서출판 상상, 2020. 박 미하일은 이 작품

자유와 사랑, 생명 존중, 이타심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그것으로 『개미도시』는 이와 같은 작가의 확장된 주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박 미하일의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개미도시』 이후 펴낸 『사과가 있는 풍경』, 『헬렌의 시간』, 『예올리』 등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되묻고 탐색하며, 해답을 찾고 있다. 『사과가 있는 풍경』의 흑백 사진기사 ‘드미트리’가 보여준 예술에 대한 진정성과 진실한 삶의 태도, 『헬렌의 시간』에서 제시된 다문화적 사유와 공존 공생의 원리, 『예올리』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순수의 판타지는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박 미하일의 고민과 철학적 사유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개미도시』 이후 박 미하일의 변화된 주제의식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이자 독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 5. 나가며

박 미하일의 『개미도시』는 인간계의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진화한 ‘개미’를 우연히 만나 개미들의 세계로 들어가 겪게 된 일을 서사화한 우화소설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통제된 사회 속에서 폭압적인 권위에 억눌려 살아가는 개미들의 삶의 형태, 개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사회제도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 보이고, 이를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과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한 물음과 성찰을 제시하고 있다.

『개미도시』는 박 미하일의 다른 작품들, 첫 장편소설인 『천사들의 기슭』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작인 『예올리』에 이르는 중·장편소설들에 비해 그 형식이 독특하고, 담아내 보이는 주제도 다르다. 그의 이전 소설들에 빈번히 드러나던

---

에서 ‘예올리’라는 로봇 인간을 창조, 온통 불의의 사건들로 가득한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과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를 알레고리 기법으로 내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박 미하일은 이 작품을 소련 해체 이후 창작 발표하는데, 이 시기의 러시아 사회는 기대와는 달리 분열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앞으로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혼돈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사회상황에서 박 미하일은 ‘좀 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궁구하고, 이를 알레고리 기법으로 『개미도시』에 담아 보인다.

박 미하일은 이 작품에서, 소비에트 연방 시대라는 지나온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소련 해체 이후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 사회불안과 혼돈의 와중에서 다가올 미래를 모색해 보인다. 소련 시대와는 다른, 좀 더 나은 내일을 담보하는 길이 무엇인지, 당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 보이는 것이다. 인간 본연과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한 물음과 성찰이 그것이다. 박 미하일은 소련 해체 이후 “내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눈앞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각자의 앞에 그 어떤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상황 속에서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된다고 여겼다.” 그는 정신이란 “인간이 파멸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내면의 축”이라고 믿었고,<sup>27)</sup> 그래서 암울하기 그지없는 현실 속에서 인간 본연에 대해 궁구한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인간 본연의 모습이 훼손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개미도시』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응답이다.

박 미하일은 『개미도시』에서, 주인공 체르니 까미슈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연,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미 도시의 시민들은 전체주의 체제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억눌려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하지도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조금 더 나은 세계를 이루기 위한 꿈조차

www.kci.go.kr

27) 박 미하일, 「작가의 말」, 『개미도시』, 뽁씨터, 2015.

꾸지 않는다. 그저 무의미한 하루를 반복하며 생존하고 있을 뿐이다. 주인공 체르니 까미슈는 이러한 개미 도시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아버지심과 솔레이는 정신적, 정치적 죽음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어 새롭게 변화된 주체의 탄생을 상징한다. 체르니 까미슈는 자유와 사랑, 생명에 대한 소중함,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일깨워 개미 도시 시민 스스로 속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체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개미도시』는 알레고리 기법으로 인간 보편의 정체성, 인간 본연을 내보이는데, 자기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정체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전 소설과는 결을 달리한다. 박 미하일은 소련 해체 이후 극심한 혼돈과 무질서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인간 본연의 문제에 침잠,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성찰하게 된다. 민족 정체성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 인간 보편의 문제로 관심을 확대, 불의의 사건들로 가득한 적대적 세상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색하게 된 것이다. 자유와 사랑, 생명 존중, 이타심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그것으로, 『개미도시』는 이와 같은 작가의 확장된 주체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이는 『개미도시』 이후 펴낸 소설들, 『사과가 있는 풍경』, 『헬렌의 시간』, 『예율리』 등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개미도시』는 주체의식의 변화를 드러내는 변곡점에 자리하는 작품으로, 작가의 확대된 자아의식과 소설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고려인, 박 미하일, 『개미도시』, 알레고리, 소련 해체, 역사적 성찰, 인간 본연, 민족 정체성

## 참 고 문 헌

### <기본 자료>

- 박 미하일, 전성희 역, 『개미도시』, 맵시터, 2015.  
-----,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도서출판 새터, 1995.  
-----, 『헬렌의 시간』, 도서출판 상상, 2017.  
-----, 『사과가 있는 풍경』, 도서출판 상상, 2018.  
-----, 『밤은 태양이다』, 도서출판 상상, 2019.  
-----, 『예율리』, 도서출판 상상, 2020.

### <논저>

-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하』, 한국사전연구소, 1994.  
권기배, 「디아스포라와 망각을 넘어 기억의 복원으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한인 망명문학 연구(2): 미하일 박 문학 세계 연구」, 『외국학연구』 20호, 외국학연구소, 2012.  
김경학 외, 「소련 사회주의 체제 해체 후 카자흐스탄 종족민족주의의 부활과 고려인의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6권 1호, 2000.  
김병옥 외,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김중희, 「구소련지역 고려인문학의 형성과 작품세계-아나톨리 김과 박 미하일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9호, 2005.  
마기영, 「재러 작가 박 미하일 소설 연구-『헬렌의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4권, 2019.  
박 안토니나, 「미하일 박의 소설 연구-『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의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1호, 2011.  
박치완, 「문학 공간과 에스닉 정체성의 문제-박 미하일의 『헬렌의 시간』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2집, 2018.  
-----, 「박 미하일의 『헬렌의 시간』과 다문화 수용 문제」, 『프랑스학회』 84권, 2018.

- 여하나, 「고려인 작가 박 미하일의 소설에 나타난 예술의 문제」, 『국제한인문학연구』 25호, 2019.
- 이상갑·정덕준, 「1990년대 이후 CIS지역 고려인문학 연구-박 미하일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9집, 2013.
- 이승하, 「재러시아 고려인 작가 박 미하일 소설 연구」, 『배달말』 48호, 2011.
-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 사전』, 푸른사상, 2009.
- 이정숙, 「박 미하일 작품에 나타난 고려인문학의 특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3호, 2014.
- 임석원,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 연구 : 『독일비극의 원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장마야, 「박 미하일 소설에 나타난 ‘고려인-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정덕준 외, 『CIS 고려인문학사와 론』, 한국문화사, 2016.
- 정덕준·김계르만, 「박 미하일 소설 연구: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94집, 2015.
- 정수연·박양하·김영미, 「박 미하일 소설 삽입시의 의미와 효과-『밤은 태양이다』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4집, 2019.
- 정의진,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론의 역사 시학적 함의」, 『한국비평문학회』 41집, 2011.
- 최한우, 「과도기 중앙아시아 현상과 한인 정체성 문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5.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 루이 알튀세르, 김승권 역, 『재생산에 대하여-자크 비에 서문』, 동문선, 2007.
- 아밀 말루프, 박창호 역, 『사람 잡는 정체성』, 이론과 실천, 2006.
- Temirbolat Alua, 「A Study of M. Pak's Ant City」,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 <CIS 고려인문학과 한국문학>, 공주대 재외한인문화연구소, 2016.
- T.W.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2010.

【Abstract】

## A Study of Mikhail Park's Novel "Ants City" — Focus on the Subject Consciousness

Yeo, Hana / Chung, Duk-joon

This article has its purpose in examining the narrative technique of the novel "Ants City" by CIS Korean writer Mikhail Park and explains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and in explaining the thematic consciousness intended to be presented by the author. "Ants City" is a fable novel that narrates on how a 'human' in human world met an 'ant' which evolved into anthropomorphous shape by chance and how he entered the ant's world. In this work, the author depicts lives of ants which are suppressed by oppressive powers in a controlled society, and the contradictory and irrational social system that supports the ant societ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From these, he presents questions and reflection on the underlying image of human and the values that humans should aim for.

"Ants City" has a unique form and a different theme compared to other novels written by the author. The novel is unlike the other novels that repeatedly exposes the problem of identity in his previous novels, the novel covers the inborn problems of human beings through the allegory techniqu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he times. Mikhail Park created this work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Contrary to expectations, Russian society at that time was full of divisions and confusion. There was a chaotic situation where no one knew what kind of society would come.

In the context of this social situation, Mikhail Park devises what he must

pursue in order to live a 'better life' and a 'human life' and puts it in the "Ants City" as an allegory technique. In this work, Mikhail Park critically reflects on the past history of the Soviet Union and the chaos present after it's dissolution. Mikhail Park conveys the message that regaining human nature is one way to overcome the reality of chaos that cannot be predicted.

**【Key words】** : Koryoin(CIS Korean), Mikhail Park, "*Ants City*",  
allegory,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historical reflection,  
human nature, ethnic identity

---

---

## 여하나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박사수료생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자우편: hosaaa@naver.com

---

---

## 정덕준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 한국학과 초빙 교수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Karasay batyr 95, Almaty, Kazakhstan

전자우편: djc21@naver.com

---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